

도시와 농촌이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 스탬프 투어로 익산을 만난다

군산풍당보리축제 준비 돌입...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제문화마을 앞뜰에서 열려

군산시는 올해 제13회를 맞는 군산 풍당보리축제를 4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일정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지난해 12월 축제추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회 군산풍당보리축제'의 기간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장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세부 준비에 들어갔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그 동안

축제실무위원회와 축제장 주변 경자 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축제장 가용면적을 22ha로 확보하고 청보리와 유채 파종작업을 지난해 11월까지 완료했으며, 축제실무위원회 협의를 통해 축제 시기와 주제, 기본계획을 지난해 말까지 수립하여 축제 로드맵에 의해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축제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축제 평가에서 개선과제로 도출되었던 공간 활용 편의시설 확보 등도 이번 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보리밭

시외길을 걸으며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 접근으로 축제 기획을 꾀하고 있으며, 축제장소 이전 2년차에 되는 해이므로 축제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내부방향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핵심과제인 어린이행복도시와 관광광역화에 맞는 축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이 찾아오고 도시민들이 즐겨워하는 농업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풍

당보리축제는 군산보리와 농경지원을 축제화 해온 만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시도하여 도시와 농촌이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풍당보리축제는 지난해 5월 새로 이전한 장소인 국제문화마을 앞뜰에서 개최되어 날씨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산농업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운영 돌입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을 이제 스탬프 투어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익산지역에 있는 백제유적지를 비롯한 주요 여행지를 방문해 인증 스탬프를 찍는 익산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를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익산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안토란 같은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소개하고, 익산 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각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 인증함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찍자를 꺼내어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스탬프 인증은 하루에 인증을 다 찍지 않아도 되고, 순서대로 찍을 필요도 없다.

스탬프찍자에 스탬프를 다 찍으면 이를 익산시 홈페이지 스탬프투어 기념품 신청 게시판에 신청하고 소정의 기념

품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기념품증정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기념품은 인증횟수별로 인증0~13개는 국보 제1호 미륵사지석탑 지수 열쇠고리가, 인증 14~18개는 국보제11호 미륵사지석탑 일러스트 에코백이, 인증 19~20개는 미륵사지/왕궁리유적 화보 사진 무드등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스탬프 인증함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제석사지, 고도리석불입상, 서동생가터, 익산성릉, 송림사, 함대3부자집 일일 등 역사관광명소의 총 2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익산의 숨은 보석과 같은 여행지를 돌아보며 역사공부와 함께 기념품도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즐기며, 익산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투어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축구 꿈나무들, 군산시민축구단 U-15팀(구단주 김민재)이 창단식과 함께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군산시민축구단 U-15 창단 본격 훈련 돌입

군산시 축구 꿈나무들, 군산시민축구단 U-15팀(구단주 김민재)이 창단식과 함께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군산시민축구단 U-15팀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준수 부시장과 김대은 전북축구협회장, 박정희 시의회 의장, 김경우 부의장을 비롯한 이상 일, 양용호 도의원과 시의원, 축구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가졌다.

총 23명으로 꾸려진 시민축구단 U-15팀의 선수들은 서원상 감독과 하은철 코치 등으로 구성된 지도진을 통해 3일부터 월명축구장에

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으며, 구단 측은 올해 금석배와 주말리그에 참가를 밝히고 시민축구단의 힘찬 출발을 일렷다.

창단식에서 한준수 부시장은 "어렵게 창단했지만 군산시민축구단 U-15 팀이 금석배의 위상에 맞게 군산지역 축구인재 양성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군산시가 돕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은 "축구인재 양성을 위한 U-15팀의 창단은 군산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가운데서

도 선수 구성을 마치고 금석배에 출전 준비를 마치는 등 지역 축구인들의 긍지를 살려준 시민축구단 임원들의 노고를 높이 산다"고 전했다.

김민재 구단주는 "중학교 팀이 없어서 이 지역의 축구인재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등 인재 육성을 위한 창단작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서 이사진들과 뜻을 모아 오늘의 결과를 봤다"며 "군산시축구협회와 지역 축구인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맛의 거리' 지정

군산시가 정과 맛이 어우러진 특색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여행마을 일원을 '맛의 거리'로 지정하여 관광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에서는 원도심 지역에서 오랜 시간 뛰어난 맛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간여행마을 일원의 거리들에 입점한 업종과 메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다양한 음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구간(근대역사박물관~월명동주민센터~동국사)을 '맛의 거리'로 지정했으며,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시간여행'과 상생하고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맛의 거리'를 '시간여행마을 먹거리 타운'이라 명명했다.

이 구간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뿐 아니라 최근 군산 특화음식 지정업소로 선정된 음식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근대역사를 느끼고자 군산을 찾는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 음식점들이 요소에 들어서 있어 맛과 멋이 어우러진 먹거리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시 식품위생과는 군산 시간여행마을의 B(Brand Identity)인 Hello, Modern을 활용하여 먹거리타운 경계 지점인 월명동 공영주차장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구)시청사 앞에 안내관을 설치하고, 시간여행마을과 연계로 통한 '먹거리 타운' 홍보뿐 아니라 설치된 안내판들이 사진 촬영의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감독 강화 총력

군산시가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시민들의 환경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서는 매년 초 수립하는 통합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총 388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총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의 환경오염행위와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2건 총 24건을 적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업조지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정기 지도점검 외 명절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및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환경오염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발행 학술지 '한국종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소장 박광수 교수)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종교'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국내 신성·소의 분야에 선정된 학술지 '한국종교'는 1971년 창간해 45년 동안 한국의 신종교와 민족종교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학술지 발간 경비를 지원받는다.

1969년 창립된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는 초대소장 고(故) 류병덕 교수로부터

2대 소장 김홍철 교수 3대 소장 양은용 교수에 이어 4대 박광수 소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신종교와 민족종교에 관한 기초연구를 끊임없이 진력해왔으며, 그 결과물이 '한국종교' 학술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는 앞으로도 '한국종교' 학술지가 한국의 종교문화에 대해 더욱 진전된 학술논의의 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